

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'더 나은 미래'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함께 한다

- 우크라이나·폴란드 고위급 면담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우크라 지원의의를 표명하고 탄탄한 한·우·폴 협력관계 구축
- ITF 교통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, 공급망,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교통 현안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강조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22일(월)부터 5월 26(금)까지 5일간 (근무일 기준)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인프라부 등 고위급 면담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(ITF,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)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한국-우크라이나-폴란드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, 기후변화, 공급망, 우크라이나 재건 등 교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였다.

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

< 한·우·폴 협업관계 구축 >

□ 원희룡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차관, 폴란드 인프라부 장관, 폴란드-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 등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지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①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(Oleksandra Azarkhina)차관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약 5천개의 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, 구체적 논의를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.

- 또한,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프로젝트 참여, 국토 개발 및 스마트 시티 조성, 교통인프라 개발, 인재양성 분야 등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
- ② 폴란드 안드레이 아담치(Andrzej Adamczyk) 인프라부 장관과 만나, 한국과 폴란드의 전후복구라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, ‘우크라이나 재건’을 한국-폴란드 간 협력분야 중 하나로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- ③ 또한,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을 총괄하고, 우크라이나와의 협의 시 정부를 대표하는 야드비가 에밀레비츠(Jadwiga Emilewicz) 폴란드-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를 만나,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와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한국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.
- ④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이강훈)와 폴란드 투자 무역청(PAIH) 간 업무협약(MOU)* 체결식에도 참석하여 폴란드 투자 무역청 지스와프 소칼(Zdzisław Sokal) 부청장을 면담하고, MOU를 통해 한국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폴란드와 협업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.

* (MOU 주요내용) 사업정보 공유, 공동 사업 발굴 및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협업 등
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와 지속적인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,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.

< **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적극 표명** >

- 원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및 우크라이나, 폴란드 민간분야가 공동으로 개최한 ‘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’에 참석하고, 바르샤바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- ① 민간 분야가 주최한 ‘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’에서 축사를 통해 가장 빠르게 국가재건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재건경험을 언급하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- ② 또한,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유엔난민기구(UNHCR) 및 국제이주기구(IOM) 관계자로부터 지원현황 등을 청취하고, 센터를 이용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도 면담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,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.

③ '23년 국제교통포럼(ITF) 교통장관회의

- 원 장관은 '23년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 개최식, 라운드테이블 등 공식행사에 참여하여, 기후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과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① 먼저, 원 장관은 '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라운드테이블'에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후 재건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고 각국의 장관들에게 소개하고, 우크라이나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.
- ② 또한, 원 장관은 영국 및 미국 교통부, 유럽투자은행(EIB), UN 유럽경제위원회(UNECE), Shell Marine, SK 그룹 등과 함께 진행된 개최식 패널 토론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 성장에 있어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한국은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.
- ③ 기후변화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적인 교통 분야 탄소 저감 노력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, 수소차량 보급 확대 등 친환경차 확산 정책과 함께, 한국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(UAM), 알뜰교통카드, 수요응답형 교통정책 등을 소개하였다.
- ④ 글로벌 공급망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높은 대외 의존도로 물류 산업의 중요도가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설명하면서, 코로나19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됐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물류 인프라, 첨단 기술, 물류데이터 공유 정책을 소개하였다.

□ 한편, 원장관은 영국 Mark Harper 교통부 장관, 독일 Volker Wissing 디지털교통부 장관, 체코 Martin Kupka 교통부 장관, 모로코 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, 일본 미즈시마 사토루 국토교통성 차관을 만나 교통 및 모빌리티, **인프라**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고,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하였다.

① 영국 Mark Harper 교통부 장관과 미래,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, 향후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.

② 독일 Volker Wissing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독일의 49유로 패스, 한국의 알뜰교통카드 등 양국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교환하고, 양국 간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정책협력회의 재개 등 협력채널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.

③ 체코 Martin Kupka 교통부 장관과는 지난 4월 면담 이후 구체화된 체코의 고속철 사업 협력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가며, 배터리,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.

④ 모로코 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과는 모로코가 추진 중인 철도, 항공 등 인프라 사업 계획을 듣고, 양국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.

⑤ 일본 미즈시마 사토루 국토교통성 차관과는 교통,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면서, 양국의 최대 현안인 **고령화** 관련 정책 및 연구 교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아울러, 원장관은 ITF 국내 기업 회원사인 Autorypt 김의석 CEO,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, 카카오모빌리티 황윤영 부사장과 함께 국내 교통, 모빌리티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,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-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관련해 “재건과 복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, 이 과정에서 한국은 좋은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”라며, “우크라이나 및 폴란드와 조속히 협업 채널을 가동하여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또한, “탈탄소, 공급망 회복과 같은 교통 현안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,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, 한국도 세계 각국과 ITF 등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(우크라 재건)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	최신형	(044-201-3516)
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김영지	(044-201-3517)
담당 부서 (ITF)	교통물류실	책임자	과 장	김정희	(044-201-3750)
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김미리	(044-201-3788)

